

질은 쌍꺼풀에 노란색 비웃, 갈갈이 삼형제의 느끼남 이승환.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를 생각해내려면 잠시 동안은 머릿속 기억들을 훑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승환에게 개그맨이란 수식어가 낯설어진지 오래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별과 관련된 행사 때마다 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식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이사이자, 한국천문연구원 별 홍보대사이고,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환 이사를 목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 회사의 대표이사답지 않게 가벼운 의류와 바지 차림이었다.

“아직 천문학에 대해 어느 정도를 읽는데, 그래도 정장을 많이 입는 편이죠. 방송할 때도 정장을 많이 입는 개그맨 연예자들보다도 많이 입는 편이지만,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많이 어렸고 저마다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정장을 많이 입게 되더군요.”

편안한 옷차림의 이승환 이사에게는 평소처럼만큼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나 할까요. 회사도 그렇고, 다른 일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요즘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쫓아서 뛰어다닙니다.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분야 분들을 많이 만나죠.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도 그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보니 아내와 아이도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예전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마음 편히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승환 이사가 운영하는 외식프랜차이즈의 2008년도 경영

실적이 체인점 수 220개에 연매출 200억이라고 한다. 환율 문제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는 않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장을 했다. 그러나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라고 한다.

“22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벌써 14년 전 일이네요. 개그맨이 되기 전입니다.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성공한 적도 있지만 망하기도 정말 많이 망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인생 경험 정도를 따지면 웬만한 사람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 이만큼 자리잡는 데 밑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도 이승환 이사에게는 개그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지금은 개그맨 이승환보다는 사업가 이승환으로서 더 많이 알아준다고 한다.

“쇼 프로그램을 나가지는 않지만 경제나 교양 프로그램에는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얻는 게 많아요. 제가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모 방송사의 과학 주제 어린이 프로그램 MC를 5년 동안 맡아보면서부터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과 함께 문화이벤트사업도 병행 중이라고 한다. 그에게 이견 놓을 수 없는 꿈이란다.

“주력 사업은 외식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러나 제 꿈은 교육과 관련된 공연, 방송,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진짜 꿈이죠. 큰 수익보다는 질적으로 팽창을 많이 시켰습니다. 과학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과학으로 대중을 끌어들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입니다.”

잘 나가던 개그맨을 그만 두고 떠난 것에는 미련이 없다고 한다. 그가 바라는 건 사회에 무엇인가를 남겼으면 하는 것이란다.

“그 무엇이라는 게 뭔가 큰 획을 긋는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승환이사



건 과한 욕심이죠. 단지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평범하게만 살지는 않았구나. 방송도 했고, 사업도 했고, 또 사회에 이바지도 했구나.'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습니다. 번 건 재투자를 하고 있고, 생활도 최대한 검소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돈보다 명예욕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이승환 이사, 그가 별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역시 방송에서였다.

“5년 전쯤 과학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때 박석재 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죠. 별에 대해서 너무 재밌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별을 좋아하게 된 데는 전직으로 박 원장님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 인연으로 별을 알게 됐지요. 그런데 제일 별자리가 게자리라는 것을 빼고는 별자리는 잘 모릅니다.”

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이승환 이사는 학생 때는 과학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한다.

“과학은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우지 못한 부족함이 지금 과학을 좋아하게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과학을 재미있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이승환 이사는 대전시민천문대의 플라네타리움에서 본 별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인공적인 별이었지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단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 천문대를 찾겠다고 한다.

“겉멋이겠지만, 승용차 보닛 위에 누워서 별 보는 걸 좋아합니다. 보닛과 앞 유리창이 이룬 경사가 기대서 하늘을 보기에 딱 좋아요. 추운 날에도 엔진의 열이 남아있어서 보닛 위가 따뜻해요.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담요를 덮고 별을 보면 정말 최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물론 체중 나가는 분들은 보닛 찌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이승환 이사는 스포츠과학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스포츠마다 다양한 과학이 접목돼 있기 때문이다.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중 과학과 관련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과학을 말하면 쉽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미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재미있고, 신나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10년 뒤에는 이 분야에서 일등하지 않을까요.”

이승환 이사는 별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홍보대사 직함을 갖고 있다. 혹시나 이름뿐인 홍보대사가 아닌지 물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홍보대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합니다. 포천명예시민홍보대사를 맡고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포천으로 휴가를 가시라고 권유합니다. 말뿐만 아니라입니다. 실제 저는 휴가를 백운계곡으로 갑니다. 시원하고 정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월에 가면 래프팅하고 밤에는 별마로천문대에서 별 보면 정

말 좋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게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홍보대사 권유가 들어오면, 많은 활동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수긍해주시면 홍보대사를 승낙합니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환 이사는 홍보대사와는 다른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직은 아마추어 인구가 적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이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별을 볼 수 있게 일조를 해야겠지요.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승환 이사는 별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 중에 있다. 그리고 천문대도 지금의 모습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의 기부에 의해 지어진 천문대도 있고, 지자체에서 건설한 시민천문대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대가 앞으로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라는 게 큰돈을 벌자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천문대가 현상 유지되는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공부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이 천문대의 상업적인 퇴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퇴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천문대를 유지하는 데 큰 돈이 계속 들어간다면 앞으로 누가 천문대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도 얻어가고, 운영하는 사람도 얻는,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한다면 더 많은 천문대가 지어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행이나 스포츠를 통해 푼다는 이승환 이사. 그에게 무엇보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강의라고 한다.

“무대 체질인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3월에만 10군데 정도 강의를 잡혀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강의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승환 이사. 별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로서 그의 열정적인 활약을 기대해본다.

